

아시아 다양한 이야기 공연으로 만나요

문화전당 6~20일 매 주말 '어린이 참여형 공연' 5개 작품 미얀마 배경 '로힝야의 노래' 스리랑카 '달아난 수염' 무대에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로힝야 난민 등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현장의 어린이가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6일부터 20일까지 매 주말 오전 11시 어린이문화원 내 어린이극장에서 '어린이 참여형 공연' 5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문화전당은 지난 4월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5개 단체의 어린이 공연 창작을 도왔다. 단체들은 4개월 여 동안 (사)국제야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김숙희 이사장의 지도를 받고 강훈규, 설용수, 최세아 씨 등 어린이극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어린이 참여형 공연으로 유명한 영국 웨일즈 극단 아라곤의 대표 제레미 터너와 워크숍과 내부 공연을 갖기도 했다.

먼저 6일 초연하는 극단 푸른 해의 '우리의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는 문화전당이 펴낸 그림책 속 카자흐스탄 이야기를 다뤘다. 우리나라의 십이지와 같은 카자흐스탄의 열 두 동물이 모여서 새해의 시작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의 시선에서 본 사계절을 무언극의 형태로 마술과 인형, 미디어아트를 이용해 표현했다.

다음 날에는 극단 무릎배개의 '달아난 수염'이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공연을 스리랑카를 배경으로 자꾸 자라나는 말뚝 꾸러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와 소녀가 겪는 이야기를 풀어낸다. 신체놀이와 가면, 인형을 활용해 말뚝꾸러기 수염에 대한 상

상력을 자극한다.

13일에는 극단 파랑새의 '용감한 탄티'가 공연된다. 방글라데시 이야기 '말의 알을 찾아서'를 가져와 만든 이 가면극은 아들에게 말을 구해주고자 여행을 떠나는 아빠 탄티의 모험담을 그렸다. 극 중에는 우리 국악과 전래 동화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1989년 광주에서 시작된 극단 파랑새는 아동·청소년 전문 극단으로 인형극·뮤지컬 무대를 꾸준히 열고 있다.

14일 공연 '로힝야의 노래'에서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문제를 다뤘다. 창작집단 보야아르는 여러가지 소리와 음악으로 난민 소녀와 방글라데시 소녀가 경계를 허물고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노래했다.

마지막으로 20일에는 스튜디오 나나다시가 스리랑카의 '우산도둑' 이야기를 들려준다. 배우, 조향사, 영화감독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젊은 예술가들이 2012년 시작한 스튜디오 나나다시는 스토리텔링과 움직임의 기반으로 어린이들을 알뜰달록한 우산이 펼쳐진 상상의 나라로 이끈다.

이 작품들은 다음 달 서울시 종로구 아이들극장과 내년에 열리는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인 '제15회 아시아드 지겨울축제'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문화전당 이주최하고 (사)국제야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문화전당 홈페이지(acc.go.kr)에서 1인 2매까지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1899-55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극단 푸른 해의 '우리의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



미얀마 난민문제를 다룬 '로힝야의 노래'



스리랑카 이야기를 소재로 한 '우산도둑'

광주문화읽기



김용태 소설가

지난 8월 모교에 다녀왔다. 은사님의 퇴임식이 있었다. 퇴임식장에서 강연을 하시던 선생님은 결국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생님의 예상치 못한 모습은 내 아버지의 정년을 상상하게 했다.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에게 딱히 그의 정년에 대해 생각해보는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황급히 단상에서 내려가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뒤편까.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쓸쓸해보였다는 말이다.

처음 작가의 정년을 생각해보는 건 소설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무렵이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작가가 되겠다고 하자 대부분은 걱정하며 만류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였다. 그 우려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래도 정년은 없잖아요. 100세 시대가 오면 오히려 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구령이 담 넘듯 농성을 떨었던 기억

성이 존중되는 제도와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구직자들과 마찬가지로 피나는 노력을 수반한 일인데도 왜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 예술가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여러 이유들이 있었지만 우선 예술가 집단의 자구적인 노력 부족을 꼬집고 싶다. 예술가들은 불편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는 진실을 표현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창작 그들이 속한 세계에 대해서는

예술가의 정년

이 어느새 19년 전의 것이 됐다.

예술가의 정년은 따로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있지는 않다. 그리고 그 정년의 기점은 경제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술가들의 정년에는 퇴직금도 연금도 없다. 스스로 적금을 들여 두거나 별도로 연금을 들여두어야만 한다. 그러나 간신히 생계만 유지되어도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가들의 습성으로 보아 노후준비 자체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복지에 대해 발언하는 건 꽤나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예술가들에게 세금이 쓰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예술가들이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걸 위해 기꺼이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짐작이 맞는 걸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낙오되어도 되는 게 우리 사회라면서 바람직한 사회라 말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는 의미로 치환이 되어서 안 된다. 좋아하는 일이, 쉬운 일로 오버랩 되는 건 전문예술가와 생활예술인들의 구분이 모호한데서 생긴 영향이 있다. 흔히 말하는 전문예술가들은 콩쿠르, 대전, 전시회, 신인상 등 치열한 경쟁과 절차를 밟아 비로소 예술가로 인정을 받는다(물론 이런 경쟁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보다 다양

대체로 무심하다. 개인적으로 예술가들 중 발언력이 큰 이들일수록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인상을 받고는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예술에 대한 그릇된 이해다. 다시 말해 예술은 어려운 것이란 인식이다. 예술이 어렵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예술가들도 속고해봐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예술 본연의 고민은 결국 어떻게 공감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다.

얼마 전 택시 운전사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난다. 택시에 충전하는 LPG요금이 일반요금보다 비싸다는 게 아닌가. 하지만 택시 운전사들은 회사에서 지정해준 충전소에서만 주유를 해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충전소를 이용하고 그로인한 부담이득은 회사로 돌아간다. 나는 왜 회사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돌아오는 답이 참담했다. 난폭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들 이미지가 강해서 항의를 한들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술인들의 복지와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앞서 택시 운전사가 한 이야기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은 문병란시인 기리는 시낭송대회 열린다

6일 동구문화센터 아트홀



구문화센터 5층 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참가자들의 본선 무대심사는 예선 오디오 심사에 제출된 문병란 시인의 시를 낭송시간 4분 이내, 배경음악·효과음·소품없이 고정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낭송하게 된다. 본선대회 심사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되며, 대상(1명)에게는 상장과 150만원, 금상(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 등 17명의 입상자들에게 총상금 340만원이 주어진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서은 문병란 시' 홍보대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글날 맞아 우리말 겨루기·말하기 대회

9일 광주시립미술관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을 토대로 시민들과 하나가 되는 행사가 열린다.

전남대 국어문화원(원장 손희하)은 한글날을 맞아 오는 9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광주시립미술관 강당 및 인근 행사장에서 '제4회 광주시민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과 '우리말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72돌을 맞는 한글날을 축하하고, 한글을 사랑하고 아끼는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말을 가꾸고 바르게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립미술관 2층 강당에서 열리는 '우리말 말하기 대회'는 1, 2부로 구성된다. '전라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로 지역 사투리를 재미있게 구사하는 시민들이라면 누구

나 신청할 수 있다. 2부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이다. 참여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로 주제는 '한국이 좋아요, 한글이 좋아요'이다.

이후에는 '광주시민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이 열린다. '광주시민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두 사람이 한 모둠을 이뤄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KBS 도전골든벨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객관식은 ○/×로 진행되며 주관식은 문제를 듣고 개인 칠판에 답을 써서 푸는 방식이다.

참가 신청은 3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전자우편(korjnu@naver.com) 접수. 자세한 내용은 전남대 국어문화원 누리집(www.korjnu.kr) 참조. 문의 062-530-0313. /박성천 기자 skypark@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이전비용 매도자부담)
- 문의. 010-3605-5000

